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1865건 부정·비리 확인에 엄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데, 형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외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

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형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외뢰를 진행한다.

목적의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외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인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현대문 구입

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 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탄생의 기적을 만든 영웅들을 만나다

다태아 분만 최고 권위자 전종관 교수와 다태아 출산가족 만나 저출생 극복방안 모색



오세훈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다태아 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 전종관 서울대병원 교수와, 전종관 교수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다태아를 출산해 다둥이 가족을 이룬 엄마아빠들을 만났다. 아이울음 소리가 귀한 저출생 시대, 탄생의 기적을 이뤄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전 세계에서 다둥이를 가장 많이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로 알려진 전종관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2021년 화제가 됐던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를 비롯해 약 1만 명의 다태아 출산을 지도한 이 분야 권위자다.

이날 함께한 다둥이 엄마아빠들은 전종관 교수의 지도로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를 출산한 부모들로, 조산, 난임 등 어려움을 이겨낸 끝에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은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백승진, 강희진 부부는 결혼 5년차에 난임시술을 통해 어렵게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8주차부터 시작된 조산기로 불안한 상태가 이어졌고 두 아이를 품은 채 6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무사히 두 아이를 출산해 양육 중이다.

최홍석, 손지영 부부는 출생연도가 다른 쌍둥이를 키우는 독특한 사연을 가졌다. 삼둥이 임신 후 25주차에 첫째를 조산하고, 남은 두 아이는 8주를 더 품은 뒤 무사히 출산했다.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어서, 올해는 난임부부를 시작으로 임신부, 다자녀 등 수요자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다.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차레대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난임부부 :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과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더 많이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비(30~49세 및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20~29세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35세 이상 산모에 검사비를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하고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다태아에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임산부 :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둘째 아이 임신·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최대 100%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다자녀 : 두 배, 세 배의 비용과 품이 드는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격을 만 13세 이하→만 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교통비, 학원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자녀 가족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24개월 모든 다태아 가정에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68회 현충일 맞은 김동연지사, "보훈은 기억·책임·다짐"

김동연 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을 끝까지 살피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영예수당을 53% 인상했

다.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피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서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회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충일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시는 대한민국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추모 묵념,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식기자

버스공영제
시민의 이동권 보장

스마트산업단지
반도체·미래차 유치

함백산추모공원
시민 복지 향상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공기업

주차전용건축물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HU 화성도시공사
Hwaseong Urban Corporation

경북도 이철우지사, 성장한계 대한민국 돌파구는 '지방시대' 강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특강...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역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 및 경제활동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 한중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강에는 김두관, 박광온, 박홍근, 유동수, 최인호, 박성민, 임태영, 윤영석, 이영호, 이인선, 하태경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과 한중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칼훈(John B. Calhoun)의 1968년 쥐 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희박화 △저출산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이철우 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양상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이번 특강이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전남도-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교류 본격화

우즈베크 산업부, 강진 태양광기업 방문 등 전남서 협력 논의

전라남도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 및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지난 1일 방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교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MITI)와 전자산업협회(Uzeltexsanoat)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지난 'KOR-UZB 에너지워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워크' 행사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천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 원 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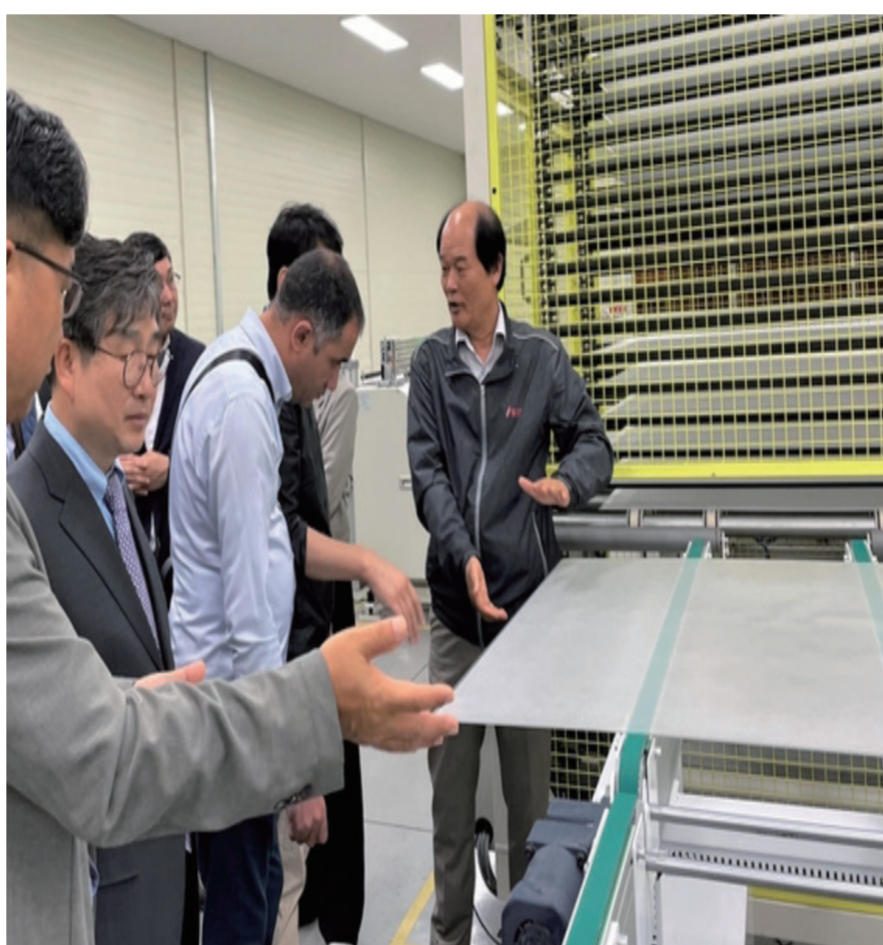
의 보급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었고 최근엔 도내 한 기업이 3MW의 물량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이 기업은 13MW 물량의 해외시장 개척길에 나설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관계자가 방문한 SDPV사는 강진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한 태양광모듈 생산 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을 설계 중이다. 약 200억 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모듈을 생산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전남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며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남 기업 지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협력이 충실히 이행되고, 정부 정책인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와 연계하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남도가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까지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중배기자



경기도, 인공지능 말벗이 독거노인 안부 묻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합니다

6월 19일부터 돌봄인공지능을 통한 노인말벗서비스 실시

경기도가 6월 19일부터 챗지피티(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독거노인 등에 안부를 묻고, 필요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말벗서비스'를 개시한다.

노인말벗서비스는 챗지피티 등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으로 경기도는 국내 포털사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신 번호는 도에서 지정한 번호로 표시가 되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전화를 건다. 3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하게 되고, 역시 전화가 안 되면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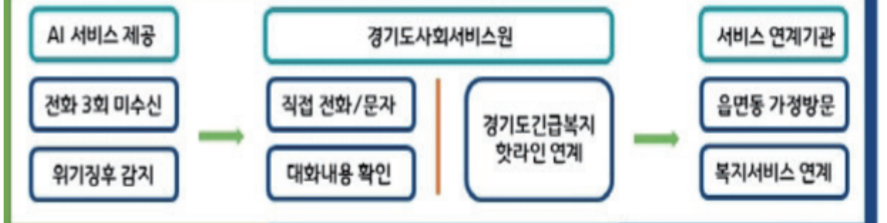
도는 단순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대화 중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

지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도는 사전 발굴 대상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그 이후 서비스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상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지만,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유사 사업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말벗서비스'가 노인들의 외로움·우울감을 덜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주기적 행진 기능으로 건강한 식사 및 운동을 권장할 생활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속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과 업무협약 체결...선진 교통정책 알린다

서울시-싱가포르 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6월 1일 (목) 업무협약식 개최

에서 활동하며 아시아 지역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친환경 교통과 대중교통 현안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교류 및 선진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관리하는 교통부와 육상교통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교통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으로는 에이미 코르(Amy Khor) 교통부 선임국무장관, 제레미 압(Jeremy Yap) 육상교통청 부청장 등 주요

과적인 교통 운영을 위해 MRT 등 대중교통 강화, 자전거 도로 구축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해왔다.

특히 싱가포르 교통부 선임국무장관은 서울시의 교통, 보행 정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다양한 노력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다. 육상교통청 부청장 또한 싱가포르의 교통정책에 서울시의 선진사례를 참고하고, 녹색교통지역과 같이 저배출 지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표단은 세종대로 등 주요 보행로를 걸으며 현장을 경험했고,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도 시승하며 미래, 친환경 대표 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수한 교통 현장을 체험하며 의미를 더했다.

세종대로는 기존 9~12차로를 7~9차로로 줄이고, 보행로를 확대해 도심 공간을 재편한 우수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라 주변 등 도심 자율주행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서울시와 싱가포르는 대중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UITP 등 국제 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함께 나서 교통정책 성과를 이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서울시와 싱가포르 교통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매력특별시 서울의 대표적인 성과인 혁신적 대중교통 시스템을 필두로 국제 사회에 서울교통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고,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식은 6월 1일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 간 서울시는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의장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8년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중교통 정책, 교통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교통 선진 도시로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23년도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싱가포르 교통 운영을 인사가 구성됐다. 이날 서울시는 대중교통 현황, 녹색교통 진흥지구,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 도로 등 주요 사업을 담은 정책 사례 발표를 실시했다. 서울과 싱가포르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로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 대표단과 공감대를 나눴다.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넓고, 인구는 약 570만명인 대도시다. 이에 따라 효

충북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박차

6월말 기준, '22년 재해복구사업 94.8% 완료 예정

'22. 8. 8.부터 8. 20.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4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괴산)의 하천 등 77개소의 공공시설에서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38억원을 투입해 복구 중으로 6월중에 94.8% 준공할 계획으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년 재해복구사업은 총 77개소 가운데 6월말기준 73개소 94.8%, 7월까지 100%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20년 재해복구사업 2,625개소 중 2,609개소가 준공하여 99.4%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 중인 16개소는 개선복구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금년말 완료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수방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수진 | 발행인: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직원: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 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 광고국: 1899.9659

정 치 부: 내선 (112) | 사 회 부: 내선 (113) | 경 제 부: 내선 (114) | 스포츠부: 내선 (115)

문 화 부: 내선 (116) | 부 통 산 부: 내선 (117) |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 취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현장·소통 중심

'현장구청장실 누리집' 운영



현장구청장실 누리집 운영 모습. 현장구청장실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

금천구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구청장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세부 메뉴는 △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

현장행정 △ 구청장 직통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은 구청의 주요 문제나 현안 등과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으로 해소, 청소년 정책, 청소년 해설, 교육 명문도시 실현 등을 주제로 현재까지 5회 운영했다. 향후 깨끗한 금천 만들기, 녹지 인프라 확충, 주차 문제 등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구청장실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 코너에서는 수출박람회 개최, 유망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가산단지단지 내 공개공지화 단 조성 등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행정' 코너에서는 현장중심 업무보고회,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 현장 기획순찰, 그리고 지난 5월 9일 개최된 동네방네 행복자킴이 위촉식까지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의 다양한 구청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구청장 직통문자' 코너에는 금천구에 관한 의견, 생활불편 사항 등 무엇이든 문자로 물어볼 수 있는 문자 전용 핸드폰 번

광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추가 설치...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기대

광진구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가동되는 무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설치장소는 초중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곳이다. 관내 통학로 주변 2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대상으로 꼽았다. 이달 안으로 광진초, 신자초, 양진초, 중광초(정·후문), 자양중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특징은, 기존 방범용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을 추가해서 비용 절감을 이룬 점이다. 당초 2대 설치 분량의 예산이었으나, 이미 구축된 카메라를 다목적용으로 보완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CCTV 설치 대수를 늘려, 더 많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오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 힘쓰고자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에는 총 62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가동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강성원/기자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서울 중구, 현충일 맞아 보훈가족에 감사 문자 발송

김동연 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사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서울 중구가 현충일을 맞아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감사 문자를 발송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6월 6일 현충일, 관내 1,307명 국가보훈 대상자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분들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국가보훈 가족에게 끝까지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위대한 헌신"을 어루만진

다. 아울러 중구 보훈회관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중구청 3층 대강당에서 보훈 8개 단체 및 회원 300여명을 초대하여 제27회 중구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구에는 8개의 보훈단체와 1,300여 명의 보훈 회원이 있다. 중구와 서울시는 중구 보훈 예우수당, 중구 생활

안정 수당, 참전 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훈 수당은 유공자증(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위한 제1회 은평구상공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열려

은평구상공회원 80명 화합 시간 다져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31일 서원CC에서 은평구상공회 주최, 은평구상공회 골프동호회 주관 '제1회 은평구상공회장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와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는 은평구상공회 회원

80명이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 우수상으로는 12개 부문에 걸쳐 시상했다. 김은복 은평구상공회장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이 생산한 물품으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상생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상공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주어 감사하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북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구제신청·법률상담·심리지원까지

서울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울 성북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청사 9층 주택정책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 피해 입차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업무 처리도 일원화했다. 전세 피해를 입은 구민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센터는 관계 기관에 정부 자료를 요청하여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접수 내역을 즉시 서울시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려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입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구청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제도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성북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일 현재 총 14건이 접수 진행 중이다. 피해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입차인에게 통보한다. 결과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20일 내에 제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 피해주택 경매·매각 유예 ▲ 피해자 우선 매수권 ▲ 세금 안분징수 ▲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 경매 지원(경·공매 대행지원) ▲ 금융지원(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 긴급복지대상자 인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

성북구는 안전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펼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하기 쉬운 주요 의무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성북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신뢰할 수 있는 중개대상을 표시·광고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세 사기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해 성북구청 누리집 (sb.go.kr)과 SNS 등에 게시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환기하도록 했다.

강성원/기자



한성백제왕도길 걸으며 탐방하고, 송파산대놀이도 배우고! 송파구 역사·자연·예술 체험하는 '송파문화여행' 진행

6월부터 10월까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송파문화여행' 운영

송파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송파의 역사·자연·문화를 탐방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송파문화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송파문화여행'은 키움센터 이용 아동(만 6세~12세)들이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재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부터 진행까지 적극 참여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송파문화여행'은 송파의 역사·자연·문화

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보관광코스 탐방과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송파산대놀이'를 배우보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구성했다. 먼저, 도보관광코스 탐방은 유구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한성백제왕도길 코스(1코스:2.5km, 풍납동리공원-동성벽, 2코스:2.5km, 평화의 문-백제집자리전사관, 3코스:2km, 한성백제박물관-방이동고분군)'와 '석촌호수데이길(2km, 서울삼전도비~석촌동고분군) 코스'

로 나누어 진행한다.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여행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속에서 감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탈춤이자 송파구에서 250년 이어져 온 전통 탈놀이인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를 배우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송파문화여행 진행 후에는 그림, 시, 산문, 사진 등 체험 결과물을 전시하고, 활동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송파문화여행은 송파키움센터 18개소를 이용하는 400여 명 아동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운영하는 체험 활동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송파키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많은 아동들이 송파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며,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송파구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Graphic titled '석촌호수 데이트길' (Seokchon Lake Date Course) listing various activities and locations like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송파산대놀이', and '송파문화여행'.

경기도 김동연지사, 반려동물 함께하는 천국 온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어

김동연 도지사는 3일 옛 경기도청 발달 청사에서 열린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참석해 "강형욱 훈련사가 15년 뒤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천국이 온다고 했는데,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을 학대하는 곳을 단속하면서 큰 실적을 내고 있다"라며 "여주에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 개관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유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가족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했다. 개관하면 꼭 한번 와주시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월 3일부터 4일까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동물훈련사 강형욱 대표의 강연 ▲반려동물 인식개선 캠페인 ▲반려인 비정상회담 ▲경기기회마켓 ▲반려동물 건강검진·미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날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공모' 시상식도 열었다. 당선작은 '경기반려마루 여주'로,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7월 개관을 앞둔 경기반려마루 여주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세상' 실현을 목표로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유기 동물 보호 및 무료 입양부터, 입양가족 교육·사후관리, 자원봉사 지원, 생명 존중 교육, 관련 전문가 양성, 반려동물 산업육성 등을 추진한다. 489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총 16만 5천200㎡로(9만 5천790㎡ 규모의 반려동물 보호 문화공간과 6만 9천410㎡ 규모의 반려동물 힐링 공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명칭 공모전 시상 이후 강형욱 훈련사와 애견 수제 간식, 애견 미용, 애견과의 가족사진, 달랠갈개(강아지와 교감도 확인) 등을 체험했다.

4일에는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외국인이 세계 각국의 반려 문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반려인 비정상회담' 등이 진행됐다.

또한 4일부터 매일 추진하고 있는 경기기회마켓이 작가와 농부 50여 팀과 함께 하며, 반려동물 펫스타 행사 콘셉트에 맞춰 반려동물 수제 간식, 의류, 관리 용품 등 판매와 함께 수제 간식 만들기, 캐리커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 청사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청사 주변 작가 및 소상공인이 참여해 구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살고싶은 호법 '복하천 호법의 숲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



호법의숲추진위원회(회장 정홍전)는 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150명은 지난 2일 복하천호법의 숲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 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호법면, 노인회,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 체육회, 의용소방대 등 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위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만들고자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화합된 시간을 함께했다.

금년 9월 경 처음 문을 여는 호법 꽃 축제에 있어 호법의 숲 코스모스 꽃길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지도록 잡초를 제거하며 이른 새벽부터 값진 땀을 흘렸다.

복하천 내 호법의 숲(나무 숲길)의 코스모스 꽃길은 해마다 호법의숲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조성되고 있어 호법면만의 새로운 특색을 자랑하고 있다.

가을이면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기 위해 호법의 숲과 코스모스 꽃길을 찾고 있고, 지난해 완료된 광역자치단체 도로망과 더불어 걷고 달리기 좋은 휴식공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정홍전 호법의숲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호법의 아름다운 숲과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사회단체 회원들과 호법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호법의 숲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시훈 호법면장은 "지역사회와 단체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감춰진 코스모스가 그 모습을 드러내 호법의 숲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고, 힐링 여행의 대표 아이콘으로 이천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성열/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6월 ~ 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개최 될 예정으로, 이날 인천시는 주요 현안 6건을 건의했고,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인천광역시장 간 1대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변 건의했다.

우선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요구는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영종-강화 도로 건설"은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영종-신도(1단계, 3.2km) 도로, 신도-강화(2단계, 11.4km) 도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도-강화(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조성 지원을 건의했다.

그 밖에 서면 건의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국비 지원(국비 11억 원 반영)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국비 35억 원 추가 반영) 등 지역 현안 사업 총 3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총 6조 원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시기인 만큼 각 실·국별로 정부예산안 심의·조정 결과를 파악·분석해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담배 물고 기름넣으면 과태료 500만원' 경기소방, 주유소 실태 검사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골프장 자가 주유소 2,001곳 대상 위험물 취급 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 실태 검사 실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주유소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경기소방은 이기간에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의 위치와 구조, 설비 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에 불시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유소에서 흡

연하면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 역시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중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고,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한 바 있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주유소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열/기자

남양주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남양주시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일패동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내 보훈 및 안보 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가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와 청년, 청소년 대표를 초청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미래 세대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현충일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 대표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남양주시 지회 박순이 회원의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교향악단과 남양주시합창단이 행사에 함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들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며 "남

양주시에서는 선열들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는 '남양주시 자랑스러운 보훈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 보훈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연재 보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잊힌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가치를 되새겨 후세에 전하는 기록은 앞으로 미래 시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광복절부터 관공서와 공영 주차장에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해 국가 유공자 7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안산시, 독일 아헨특구시 경제협력사절단 맞이

이민근 시장, 수소에너지 분야 교류와 상호 경제협력 방안 논의

안산시는 지난 5일 독일 아헨특구시 경제협력사절단인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및 양 도시 간 기업·교육 등 교류확대를 위해 안산시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절단은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 벤자민 파다비앙 헤르조겐란트시장을 비롯해 정계, 교육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17명의 전문가 및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소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이날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소개를 듣고 ▲수소e로움 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반월공단 내 주유기업 ▲향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방문해 양 도시의 수소산업 전략과 도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호협력도시인 독일 아헨특구시와 교류·협력이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 시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아헨을 비롯한 많은 독일 기업이 안산에 투자하고, 우리 기업은 유럽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도록 상호 협력과 교류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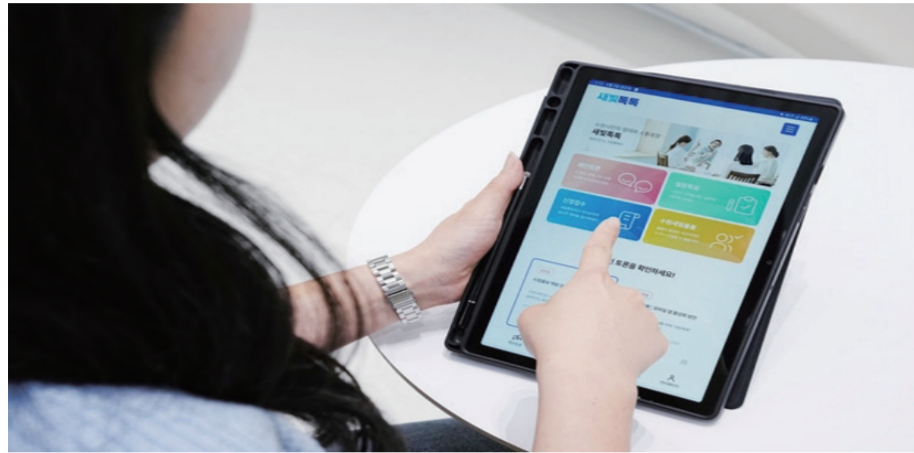
한편, 이 시장은 지난 4월 하노버박람회 참석차 독일 방문 시, 아헨특구시와 '수소분야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실행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소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수소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성열/기자



‘시민이 만드는 도시’ 수원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수원시,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시범 운영 시작



시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시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된다. 수원시가 지난 6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시민 참여·소통 광장 ‘새빛톡톡’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에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고, 지난해 10월 ‘민선 8기 수원특례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며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빛톡톡’이 시민들을 찾아왔다. 플랫폼 명칭은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 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은 시민들이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작성’을 클릭해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등록하면 된다.

새로운 정책 또는 기존 수원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 소통과에서 제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게시글 표출 여부를 판단한다. 민원성 글, 정치적·영리목적 글, 근거 없는 비난, 욕설 등은 반려될 수 있다.

등록 승인된 제안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댓글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소통과는 베테랑 공무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 관계자 등 제안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제안을 구체화한다. 토론 기간에 제안자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듣고, 제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적·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정한다.

토론 기간에 일정한 수준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게시한다.

심사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정책화한다. 채택되지 않는 제안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해 수정·보완한 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 토론회를 거쳐 ‘정책화’가 결정되면 사업 부서는 정책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제안한 시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전달한다.

‘설문·투표’는 수원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찬반투표도 이뤄진다. 설문조사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한다. 각종 토론회에서 새빛톡톡을 이용해 현장 투표도 할 수 있다.

‘신청·접수’에서는 수원시가 주관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수원새빛돌봄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7월부 8개 동에서 시범운영된다.

새빛톡톡이 시장참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회원가입, 정책 제안, 토론 참여, 설문·투표 참여 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 한도는 한 달에 5000점이고, 분기당 최대 1만 점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감을 50개 이상 얻은 제안, 담당 부서에 채택한 제안을 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새빛톡톡 앱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도 곧 내려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캄보디아·말레이시아에 아세안시장개척단 파견해 ‘수출길’ 확대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현지 파견 (5월 29일~6월 3일, 4박 6일간)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FTA센터)가 함께 추진한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종합품목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경기도 내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도와 경기FTA센터는 현지 구매자 연결과 기업당 1:1 통역을 지원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4건 667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12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5건 1,125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과 337만 달러의 계약추진, 7만 달러의 현장 계약 성과를 거뒀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가 속한 아세안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소비 규모가 확대되는 거대 경제 시장으로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며 제품 구매력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한류열풍이 지속되며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해 현지 구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참가기업들은 신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방 탈모 방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A 기업은 현지 상담회 전부터 관심 구매자와 적극적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현지 파견 시장개척단에 참가했다는 B 기업은 “직접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구매자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경기도의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기FTA센터의 적극적인 섭외로 적합한 구매자들과 연결이 많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총괄과장은 “아세안 지역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 등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유망지역”이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계속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자카르타 국제프리미엄 소비재 경기도 단체인 등 다양한 유망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처인구 김량장동 현충탑에 국가유공자 등 1000여명 참석...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



용인특례시 6일 현충일을 기념해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다.

추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근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지역 내 국회의원과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장, 국가유공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이 열린 용인특례시 현충탑 주변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인민군 진출 소식에 대한민국 국군 제8연대 2대대를 투입해 진군을 지연시켰던 ‘김량장 전투’가 벌어졌던 의미 깊은 장소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매년 이곳에서 추념식을 개최해왔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1분 동안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현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추모 공연은 명지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가곡 ‘별 헤는 밤’을 불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국가유공자 유가족과 보훈단체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지난 1950년 남침을 자행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한 정권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 역량을 키우고 각오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목숨바쳐 헌신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 존립 이유와 애국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새빛톡톡 앱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도 곧 내려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최만식/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톡톡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새빛톡톡 앱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도 곧 내려받을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스마트 돌봄’사업 운영

스마트 플러그 설치 및 문자안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안전 돌봄 IoT 운영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장소에 스마트 플러그 기기를 설치하여 생활 밀착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스마트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플러그’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돌봄 서비스다. 대상자의 TV, 컴퓨터, 밥솥 등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인근에 설치한 뒤 대상자의 움직임(Avg), 온도(°C), 습도(%RH), 조도(%CdS), 이산화탄소(ppm), 총휘발성 유기화합물(ppb) 등 6가지 영역의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위험 발생 시 지정 담당자(마음e플래너)의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대처를 진행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대비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관내 18세 이상~65세 미만 1인가구로 마음e플래너 모니터링을 통해 고립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힘든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실시한 광명시 1인가구 생활 실태 조사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한 1인가구 중 우울감이 높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장년 1인가구 A씨(한양동 거주)는 “건강이 나빠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화할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 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와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기기를 설치해주고 안부 확인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정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장은 “사물인터넷 기기 보급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높은 1인가구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1인가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오산천 상류 오염수 유출문제 함께 조속해결’협의

오산천 화성구간 맨홀서 오염수 유출로 악취 발생... 오산-화성 선제적 대응

이권재 오산시장 5일 오후 화성시 동탄 출장소를 방문,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오산천 상류부에서 유입된 오산 구간 퇴적물 등 오염원 방지를 위한 다수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천 2교 하수관거 맨홀 하수 유출 추가 방지대책 추진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의 시설물 및 방류수 관리 강화 ▲오산천교-금오대교 오산천 구간에 대한 하수도 시설 점검 협조 ▲오탁방지막 설치, 하천 준설을 통하여 오산천 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시행 등에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번 문제는 화성 구간 하수관로가 깨졌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이라며, “최대한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쌓여있는 슬러지를 걸러낼 슬러지 준설 비용은 화성시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통해 전반적인 문제해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오산시는 지난 5월 18일, 5월 23일 양일간 오산천 상류 구간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를 벌인 결과, 오산천 2교(화성시 방교동) 인근 맨홀에서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염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계속하여 관찰해왔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오산시가 화성시에 오산천교 이후 화성시 관리구간 하수도, 관로 등의 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지난달 25일에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하수 유출 맨홀에 대해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화성시는 해당 맨홀 유입하수 우회 공사를 6월 중 완료하고, 해당 맨홀 교체는 오는 9~10월 중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오산시 생태대전과 관계자와 화성시 관계자, 안민석 국회의원, 오산시의회 정미석 부의장, 전예슬 시의원, 환경시민단체, 삼성전자 환경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합동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앞으로 정명근 시장 및 화성시 관계자와 하수가 유출된 맨홀 정비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또 다른 오염원의 존재 여부까지 면밀히 살펴볼겠다”며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시민 여러분과 늘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이날 면담에 이어 오산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차 점검했다. 양시현/기자

경북도, 올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1,200억 원 투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9개소 추진으로 급수구역 확장

경북도는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노후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량하는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올해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 추진 중인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39개소, 963억)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14개소, 81억)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사업(9개소, 119억)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1개소, 39억) 등 4개 사업 63개소에 1,200여억 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2020년 93.5%, 2021년 94.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청송, 봉화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상수도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19개 시군 39개소의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신규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을 설치해 상수도시설을 확충한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은 14개 지역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률은 94.1%에서 0.9% 상승된 95%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 읍면 단위 급수구역 간 비상공급 연계관로 체계 구축으로 재난이나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제한급수 없이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7개 시군 9개소에 추진한다.

아울러 경산정수장에 활성탄 및 오존처리기법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갈수기 수질저하에 따른 수돗물 냄새

를 없애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도에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42개소, 1,559억)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14개소, 105억)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사업(9개소, 362억) 등 3개 사업 65개소에 2,026억 원 규모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속적으로 상수도관을 신설하고 정비해 도민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업인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2023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 교육 실시



영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으로 개발하여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2023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8회 총 30시간 과정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HACCP기초 및 식품위생법 이해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전자상거래와 SNS마케팅전략 △세무관리 전략 △추출농축 가공 실습 △과립·환 가

공 실습 △선식가공실습 등 농산물 가공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절차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본교육 과정은 지역의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85%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을 이용해 가공품 연구나 시제품 및 가공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21년

개소하여 지금까지 23회 5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교육받은 수료생 중에는 유통전문판매업 창업을 통한 송고버섯 누룽지 외 8종의 상품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윤철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가공시설 활용 교육 및 가공 전문교육을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점검

근로여건 확인 및 임금지급 여부 등 점검 나서

청송군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고용 실태를 점검했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고용 실태 점검에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고용주 및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여건 및 숙소 점검, 임금 정당지급 및 인권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

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농촌 근로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여 배정인원이 확정됐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3년 (예비)마을기업 총 7개소 지정

의성군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 공모에서 1차 5개소 및 추가(5월31일) 2개소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는 마을 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의 큰 축이다.

금번 지정된 예비마을기업은 4개소로써, 농산물 브랜드화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사업을 하는 '단복애청년', 금화규 가공 및 판매를 하는 '의성금화규', 농산물 직거래 및 사과, 자두 말랭이 생산·판매를 하는 '진영농업회사법인(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호피롤리데이'이다.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정체성

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2년간 예비마을기업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됐는 3개소가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애견 수제간식 제조를 하는 '애니콩', 지역산 재래콩을 활용하여 대마 손두부 시제품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원잎', 의성의 토종한지 마늘을 활용하여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톨'이다. 신규마을기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마을기업이 갖는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겸비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을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 야간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

행사기간 동안 대릉원 31만4163명 방문, 지난해 1년 전체 방문객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



경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고분을 배경으로 펼쳐진 미디어아트가 야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떠올랐다.

대릉원 무료 개방과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펼쳐진 '2023 경주 대릉원 미디어아트'가 5월 4일부터 이달 4일(매일 19시 30분~22시)까지 32일간 대릉원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대릉원 미디어아트 운영기간 동안 대릉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31만416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전체 대릉원 방문객 132만 9114명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관람객들은 초록빛의 왕릉이 그동안 본 적 없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소식에 많은 놀라움을 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릉원의 역사·예술적 가치를 첨단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각·감각적 콘텐츠를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하는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인공적인 구조물을 추가하지 않고 고분군 특성을 있는 그대로 살려 낮에는 대릉원 그대로의 가치를 느끼고 밤에는 빛과 영상 등의 예술작품들로 밤하늘을 밝혀 관람객들의 발길

을 사로잡았다. 특히 화려한 시각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의미, 시간과 공간의 특별한 해석, 대릉원에서 출토된 유물·가치 등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미추왕릉 실화를 토대로 제작한 키네틱 그림자 연극, 천마총 내·외부 미디어 파사드, 발굴 유물로 제작한 바닥 조형, 신라의 별자리 라이팅 아트 등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 아트도 흥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시는 이번 미디어아트를 계기로 대릉원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리단길에 집중돼 온 경주 관광외연을 시내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대릉원 미디어아트는 도심 속 고분유적지를 배경으로 첨단기술과 예술이 더해져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며 "향후 황리단길을 비롯해 대릉원, 중삼상가 등 도심 곳곳에 까지 관광객들을 유도해 경주관광의 새로운 중심상권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주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30년 이상·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등



영주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한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신청은 시누리집 고사·공고란에 첨부된 점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영주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소규모의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 강화'

소유자 의무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보강, 제한적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신설

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사육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된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모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향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포기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승욱 농축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금자/기자



2023년 4월 2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잠글 것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시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 가시줄, 오일스틸, 다용도형사포, 노안면지주택

동물보호법 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반려동물을 돌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견이 공간을 이동할 때 당도해 경관을 주시세요

동물보호법 제16조 (동물보호의무) 제1항 제1호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동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세요

동물보호법 제16조 (동물보호의무) 제1항 제2호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동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동물보호법 제16조 (동물보호의무) 제1항 제3호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동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반려견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동물보호법 제16조 (동물보호의무) 제1항 제4호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동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봉화군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부공공협력사업

영덕문화관광재단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 '축산항 주민탐사대' 모집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 : 내가 만난 축산항'에 참여할 주민탐사대를 모집한다.

축산항 개항 100년 보물선 프로젝트는 내년 개항 100주년을 앞둔 축산항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축산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 발견한 인문적 자원을 통해 축산항을 부흥시킬 문화관광 동력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그 중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 : 내가 만난 축산항'은 축산항의 역사, 인물, 이야기가 담긴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 탐사대가 채록한 역사, 인물 자원은 축산항의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축산항 주민 탐사대는 축산항에 관심 있는 영덕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진, 영상 등 두 가지 활동 분야를 모집한다. 참

여자는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현장 탐사, 작품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으로 성과물을 완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탐사대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영덕문화관광재단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이 100년을 이어온 축산항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며 미래를 위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시각으로 포착된 축산항의 다양한 면모가 기대된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덕, 축산항 주민탐사대 : 내가 만난 축산항'은 오는 6월 17일까지 영덕군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탐사 기간은 6월 20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이메일(hjh@yodct.org)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대구광역시, 2023 데이터 중심도시 대구 컨퍼런스 개최

데이터산업 분야를 이끌어 갈 전문가, 기업인, 일반시민이 한자리에

대구광역시는 6월 15일 대구컨벤션뷰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주관으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데이터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23 데이터 중심도시 대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학계, 연구원,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전문가 및 관련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전초로, 데이터 분야 정책 및 산업을 이끌어 전문가 등 관련자를 초청해 국내외 정책 및 산업 동향을 공유·교류함으로써 데이터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오전에 진행되는 ▶1부에서는 (사)대경ICT산업협회 중심으로 지역 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데이터 생태계'를 주제로 산업데이터, 기업데이터 등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한 강연과 네이티브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3부에서는 '데이터 기업과 인력양성'을 주제로 고려대 남호성 교수, 경북대 이민호 교수, 디지털트 박경준 교수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 모빌리티, 제조 분야의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전시 및 시연도 진행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든 참석 가능하다. 6월 12일까지 데이터 오피스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대구 산업지도를 개편해야 할 시기에 이번 컨퍼런스가 데이터 산업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 '데이터 중심도시 대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제68회 현충일 추념 행사 거행



예천군은 6일 오전 9시 50분 남산공원 충혼탑에서 제68회 현충일 추념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추념 행사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경상북도의원, 보훈단체장, 기관·사회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공무원,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을 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분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와 분향 추념사에 이어 예천여성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학동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풍요로운 삶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우리 모두 국가에 충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삶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천여객과 협조해 무임승차권을 배부했으며 예천군해병대전우회에서도 교통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뜻깊은 현충일이 됐다.

윤타용기자

울진군 금강송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금강송면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머리 맞대어



울진군 금강송면(면장 박재용)은 지난 2일 금강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금강송면발전협의회(회장 이영모) 주최로 금강송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영수 행정동우회장,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 강성철 울진군산림조합장 등 산림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금강송면 발전협의회회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임영수 행정동우회장의 '녹색산업으로 다이아몬드 고장을 만들자' 및 강성철 울진군산림조합장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 주민 소득원 발굴 방안'을 발제로 이뤄졌다.

2부 패널토론회는 방한서 조선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1부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금강송면의 발전을 위해 ▲금강송면 버섯축제 개최 ▲돌베나무마을 조성 ▲면 소재지 약초 및 산채 시장 개설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장단기 방안들이 건의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모 금강송면발전협의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모두가 함께 애쓴다면 분명 금강송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또,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강송면발전협의회에서도 금강송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갰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경남도 현충일 추념식 거행

제68회 현충일 맞이해 도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추념식 거행



경남도는 6일 오전 창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강기운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구), 보훈단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며 함께 참배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신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전쟁 전사자인故 이종태 일병의 며느리(子婦)이자 창원낭송문학회장인 김효경 씨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안식을 담은 추모헌시인 ‘다시, 6월에’를 낭독했다.

현충일 추념식은 도내 전 시군 충혼탑

에서 묵념 시간에 맞춰 일제히 거행됐다. 경남도는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도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태극기 조기 게양을 독려했으며, 각 지역 충혼탑에서 자율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현충일 홍보 운동을 추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런 경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또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공헌을 기리고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희망찬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경남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현재까지 임원치료 중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6.25전쟁 참전용사 및 전몰군경 유족분들을 위한 전적지 순례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통영시, 제62회 경남도민체전 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영시, 도민체전 선수단 맞이 대대적인 환영분위기 조성 돌입

통영시는 지난 6월 5일 시내 전역에서 제62회 경남도민체전 손님맞이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도면(죽림일원)과 8개 동 지역에서 공무원과 자생단체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참가자들은 도민체전 홍보용 팸플릿과 차양 2부제 자율참여 서한문 등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깨끗한 도시환경과 친절한 통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시를 찾은 타시군 선수단과 가족들이 대회기간 4일 동안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광도면지역 캠페인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직접 참여해 죽림 종합버스터미널과 이마트 주차장일원에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단독으로 개최하는 금번 도민체전의 뜻깊은 의미를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면서 적극 응원을 줄 것을 요청했고, 광도면 이장단 및 자생단체원 등 60여명도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행사는 대회가 임박함에 따라 시민참여 및 선수단 환영분위기를 고조시

켜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 기획됐다.

금번 도민체전의 하이라이트인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6월 9일)에는 웅장한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인기 아이돌 스테이지(STAYC), 진성, 양지은, 정미애, 박혜신 등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영시에서는 행사장 주변 부족한 주차시설을 감안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양2부제 동참과 대중교통 이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버스터미널에 있던 한 가족은 통영에서 정말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주변에도 적극 알려 함께 응원하겠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며, 6월 9일부터 4일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로 계획되어 있어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스포츠축제를 함께 즐겨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다.

이윤준/기자

경북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최종 확정

미래 스마트 경북형 농업으로 도약하는 문경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문경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문경시는 지난 1월 6일 경북 농민사관학교 문경 유지를 위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유지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같은 달 16일 경북도 측의 문경 이전 결정을 내부적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문경 이전 내부 결정 이후, 이전 예정지 확정을 위해 4개월 동안 10여 차례 경북도 협의 방문을 했고, 이전 예정지인 문경향토음식학교에서 4차례에 걸친 현장 회의를 가졌다.

이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어 문경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예산 확보, 중축공사 시행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개소 및 교육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으로 이전하는 경북 농민사관학교는 현재 군위군에 소재해있으며, 1,566명의 농민 교육생을 대상으로 64개 과정을 운영 중

이다. 학교장을 비롯해 본부장, 교육운영·미래인재·성과관리·행정지원으로 구성된 4개 팀으로 현재 14명의 교직원인 근무 중이다.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문경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 농업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미래 스마트 경북형 농업으로 도약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경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북 농민사관학교의 문경 이전을 통해 경북 농업인들에게 선진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힐링과 휴양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사천시 제24회 박재삼문학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서정시의 대가, 고(故) 박재삼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추모·계승하기 위한 ‘제24회 박재삼문학제’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문학제는 ‘박재삼 시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박재삼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 박재삼 시 엮서 공모 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박재삼 시 창작 노래 경연대회는 서정적인 시인의 작품을 노랫말로 써서 자신만의 창작곡을 발표하는 대회로 올해 처음이다.

6월 10일 오후 1시 본선이 치러진다. 대상(1팀) 100만원, 금상(1팀) 50만원, 은상(2팀)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박재삼 시 엮서 공모전 역시 첫 대회로 감성 가득한 엮서를 이용해 박재삼의 문학세계와 시의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수상작은 문학제가 열리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박재삼 시인의 유려한 서정을 담은 지역 서각인들의 작품 15점과 함께 문학관 앞뜰에 전시된다.

또한, 제24회 박재삼 시 백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사천시민)이 참가대상이며, 6월 9일 오전 10시 박재삼문학관 앞뜰에서 치러진다.

참가 희망자는 6월 8일까지 박재삼문학제 다음카페 게시판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6월 10일 오후 2시 박재삼문학관 다목적실에서는 초청시인 문학 특강도 열리는데, 이달균 경남문인협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아울러, 제24회 박재삼문학제 종합 시상식은 6월 10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또는 박재삼문학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준/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영천향교, 한방차 지도사 자격증반 개강식 개최

영천시 관내 약재를 활용한 한방차 지도사 양성과정

영천시는 지난 5일 영천향교 명륜당에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차 지도사 양성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기로 개강 이후 매주 월요일 총 15차시로 운영되며, 1기는 지난 1일 개강식을 가졌다. 당초 향교 측에서는 1기 총 20명의 모집인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문의가 폭주해 과정을 나누어 각각 30명씩 총 60명의 모집인원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영천향교 김동영 장의는 “교육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대임에도 배움에 대한 열의로 문의하신 분들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과정을 나눈 만큼, 모두 끝까지 수료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은 약용차 소믈리에 전문가인 이지선 씨가 담당하게 되며, 우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약재나 약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이를 활용해 취업이나 창업은 물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즈넉한 향교와 한방차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뜻을 같이하여 인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영천시가 한방과 약재로 유명한 만큼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뜻깊은 시간을 갖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청소년재단, 세 번째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버스킹’ 개최

10일 포항시청소년수련관 1층 특별무대에서 밴드·관객이 어우러지는 버스킹 개최



포항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세 번째 청소년어울림마당 ‘야나두, 청소년 버스킹’을 오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포항시청소년수련관 1층 특별무대에서 진행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 및 기반 구축에 의거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해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및 역량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4월 청소년 MC 오디션, 5월 개막식에 이어 6월에는 청소년 버스킹 축제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엔 진행되는 청소년 버스킹은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및 지역 내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들이 댄스나 힙합 등에 치우쳐 있는 공연 문화를 밴드와 관객 모두가 어우러지는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했으며, 송도중학교, 포항중학교, 환호여자중학교, 동지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의 밴드 동아리 친구들이 연합해 다양한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1층 특별무대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어울림마당에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청소년들 간 말하지 못할 고민 등을 익명으로 적어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청소년 대나무 숲’, 목표점수를 맞추는 게임과 함께하는 ‘청소년 버스킹’ 등 관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어울림마당으로 구성됐다.

운영한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여형 축제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 포항시 청소년어울림마당 관련 내용은 포항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고, 문의는 포항시청소년수련관으로 하면 된다.

윤태용/기자

지자체 유일 통계, '2022 부산해양산업조사' 결과공표

지난해 6~7월에 실시한 부산시 내 해양 관련 사업체 전수조사 결과 공표

부산시는 부산의 해양산업 현황 및 동향에 대해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파악하여 부산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6~7월에 실시한 '2021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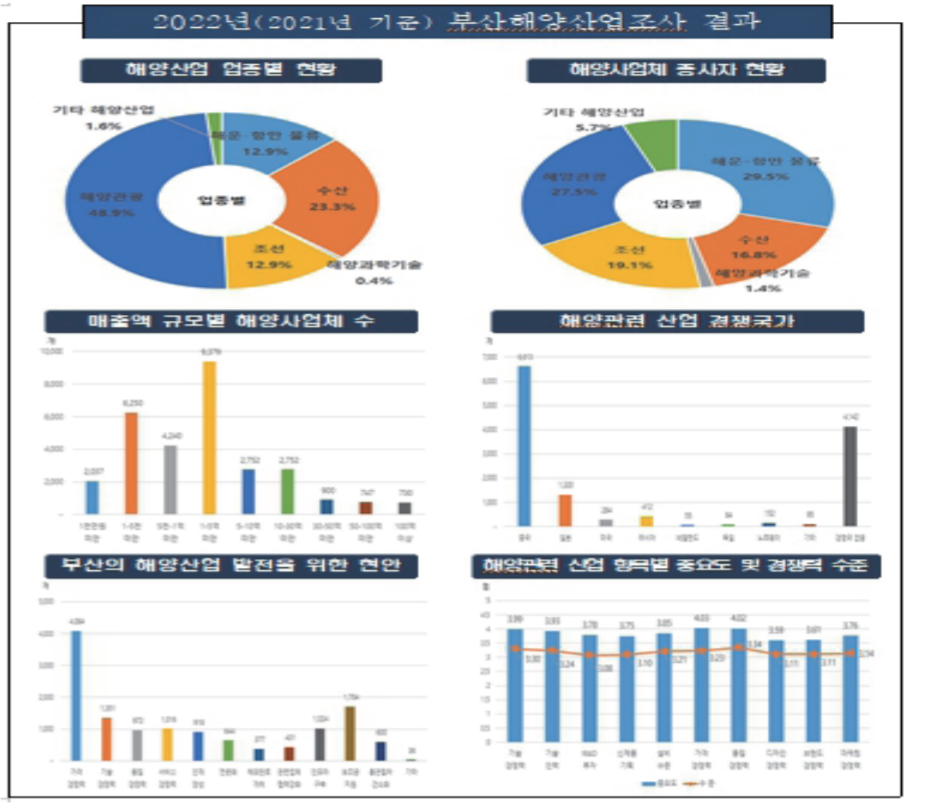
2010년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12회를 맞은 '부산해양산업조사'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조사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산시 내에서 해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수는 총 29,787개, 종사자 수는 15만 4천 명, 매출액은 48조 6천억 원이었다. 부산시 전체산업 대비 사업체 수는 7.4%, 종사자 수는 10.0%, 매출액은 1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사업체 수는 6.5%, 종사자 수는 6.3%, 매출액은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산업 분류별로 살펴보면, '해양관광 분야' 사업체 수가 14,576개(전체의 48.9%)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항만물류 분야' 매출액이 19.7조 원(전체의 40.4%)으로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해양산업의 경쟁국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꼽았고, 현재 부산의 해양산업이 가진 경쟁력 중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은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며, 부산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가격경쟁력 향상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와 수산 환경 악화 등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애쓰신 소상공인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고, 부산해양산업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사업자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산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시장 활동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적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 것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송충진/기자

남해군, 농기계순회수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추진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6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3월부터 실시했던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5월말 기준 읍면 23개 마을에서 진행됐다. 48명교육생을 대상으로 농기계 60대를 수리했으며, 경운기와 트랙터에 '안전운전' 반사스티커를 부착했다.

농번기 기간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 수요가 많아 잠시 중단했으나 임대사업소 농번기 휴일 근무 일정이 끝나는 6월 13일(미조면 천하마을)부터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일정에 맞게 재개한다.

봄철 농번기 때 사용할 농기계를 가를 수 확 절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며,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운기, 관리기 점검·보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한 기종 당 부품 가격 3만원 미만은 무상 수리, 3만원 이상금액은 3만원을 공제한 부품대금만 징수하고 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최근 관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농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준/기자

구미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업소 당직 근무 폐지

시에서는 청사별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점, 모바일 기기 사용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점 등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당직 근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직 근무 폐지를 통해 대체휴무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민 행정서비스 및 대응체계를 본청 당직실로 일원화 한다.

간 당직비로 지출되던 예산을 절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당직 근무 폐지에 따라 민원 서비스가 저하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요 발생 민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고, 기존 시행하던 바로처리 근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각종 상황발생 시 본청 당직실로 일원화 된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일 버리기, 격식을 없앤 스탠딩 회의, 인사운영 혁신방안 발표 등을 통해 행정 분야 업무혁신을 주도하고 내실 있는 변화로 새희망 구미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달서구, 미혼 남녀 설렘 가득 고고미팅 운영

달서구, 6월 23일 고고(만나go, 결혼하go)미팅 참가자 모집

대구 달서구는 6월 23일 관내 카페에서 연애와 결혼에 관심 있는 미혼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인 '고고(만나go, 결혼하go)미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고(만나go, 결혼하go)미팅'은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이성 간 만남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들에게 건전한 데이트 기회를 제공해 결혼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청년 만남 프로그램이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고고미팅은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이 참가하는 소그룹 미팅으로 사전 신청자들의 나이와 직업, 이상형을 고려해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행사는 전문 사회자의 진행으로 아이스브레이킹,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로테이션 대화 등 유쾌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참가자들을 커플로 매칭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다.

참가 자격은 주소 또는 직장인 달서구이거나, 달서구와 업무협약기관에 근무하는

미혼남녀로 달서구청홈페이지 내 여성/결혼분야 '솔로탈출 결혼원정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 결혼장려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만남행사를 추진하여 미혼 남녀들이 연애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나아가 청년들의 삶에 결혼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더하는 대한민국 결혼1번지 달서구를 조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향”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전략포럼』

강원도-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주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개발 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강원 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 방향”을 주제로, 세션I는 '접경지역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세션II에서는 '접경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의 포문을 여는 기조 강연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주제

로 유기준 상지대학교 교수가 한다. 세션I에서는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접경지역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김남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수·박대현·김용복 강원도의원, 박세중 휴먼링크 연구소장, 김영국 강원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세션II에서는 접경지역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관광부서장들이 '접경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주제로 순서대로 발표하고, 이승구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배준호 한라대 교수, 이석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진성 플랜이슈 대표, 이상봉 브랜드관광연구소 대표, 성보현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와 도의회 접경특위, 접경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가 동시 개통되는 2027년 미래 교통 여건 변화에 발맞춘 다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공유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통과되



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됐던 접경지역의 발전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접경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 발전 방향을 찾는 유의미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등원/기자

태백시,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간담회 실시

태백시보건소는 지난 30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원도청,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앙기관과 함께 태

백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태백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추진 현황을 논의했으며, 태백시는 성과 및 향후 계획과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 등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앙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강릉시 명주군왕 능향대제, 축제로 즐긴다

7일, 월화거리 일원에서 퍼레이드 등 볼거리 가득한 전야제 개최

강릉김씨 시조인 명주군왕 김주원을 기리는 '명주군왕 능향대제'가 오는 8일 11시부터 성산면 보광리에 위치한 명주군왕릉 능향전에서 봉행된다. 제례에 앞서 보수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을 한 담장 준공식이 10시 개최되며,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및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주군왕 능향대제는 매년 음력 4월 20일 신라 태종 무열왕의 5대손이자 강릉김씨 시조인 김주원의 얼을 기리고 신앙하는

제례행사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유교식 제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강릉김씨 대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김홍규 강릉시장을 초헌관으로 하고 아헌관, 종헌관 등 강릉김씨 후손들이 능향대제 헌관과 제집사를 맡는다. 한편, 명주군왕 능향대제에 앞서 오는 7일 오후 6시 30분 강릉월화거리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으로 가득한 전야제가 진행된다. 강릉그린실버악단의 식전공연과 함께 월화정을 출발점으로 월화거리 은행나무 앞

까지 취타대를 앞세워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강릉시립합창단 공연과 가수 및 지역 공연팀의 축하공연이 더해져 월화거리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추억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강원 고성군,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D-100일 행사 전 대대적인 환경정비 추진



고성군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D-100일 숲길 걷기 대회'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여를 꽃식재 시가지 가로 화분 정비 작업과 주행사장 주변 제초 및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토성면 시가지와 7번 국도 주요 도로변에 산파첸스,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여름계절꽃 7,000본을 식재했으며, 엑스포 관문 도로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주행사장 내에도 무성한 잡풀 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불 조성 및 대국민 참여 등 엑스포 성공기원을 다짐하기 위해 오는 17일 개최하는 D-100일 숲길 걷기대회는 숲방울전망대 체험, 화암사 숲길 걷기를 비롯하여 숲 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목공예 만들기 체험, 버섯 시음체험, 산림엑스포 VR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방송인 안혜경씨가 참여하여 산림엑스포 랜드마크인 높이 45m의 숲방울전망대 체험과 화암사 숲길 걷기를 함께한다. 행사 참여는 선착순 1,000여명 사전 모집으로 6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고성사랑상품권5천원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입장권 5천원으로 다시 돌려준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과 4개시군(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존중하나 판단에는 오류 있어"

시민정책토론 청구대상은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반드시 필요

국민권익위는 지난 3. 7.(화) 원주시가 아카데미친구들(청구인 이주성)에게 요청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6. 1.)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하여 종결(5. 18.)한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그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결격사유 조치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여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 또한,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만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며, 청구인의 요건을 확

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의견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고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카데미 (구)아카데미극장 앞 승강장을 비롯해 관내 12개소에 수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목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강원도, 지역 의료인력난 해소에 한걸음 앞장!

'23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전국 최다 장학생 선발



강원도는 2023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서 전국 최다의 장학생을 배출하여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면허 취득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2~5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대도시 선호 및 잦은 이직으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에 유능한 초임간호사가 지원·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간호사 급속장려금지원 제도도 운영중에 있다. 이 사업은 초임호봉 1~5호봉 이내인 정규직 간호사에게 3년~5년 만기 약정 선택지급 방식으로 3년만기 시 월 70만원, 5년만기 시 월 90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만큼 해당 의료원에 의무복무하는 조건이다. 윤승기 강원도 보건체육국장은 “이번 결과는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치 추진에 따른 의료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인력난 해소에 한걸음 앞장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지역 내 의료기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철원교육지원청 철원교육도서관, 2023 '도서대출반납 키오스크 체험형'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철원교육지원청 철원교육도서관은 20일부터 디지털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철원군 내 노령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성인 대상'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디지털 문해교육은 강원도교육청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고령 시대의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철원지역 시니어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교육 방식은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교육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스마트도서관 기기 사용법을 안내

하는 등 디지털 문화 적응력과 편리성을 경험하는 '키오스크 체험형'으로 운영한다. 교육 일정은 △디지털 회원증 만들기 교육(5월 20일) △대출반납기 키오스크 교육(6월 3일) △스마트도서관 이용 교육(6월 10일)으로 운영된다. 박윤민 분관장은 “이번 디지털 문해교육이 디지털 문화 경험이 적고 적응이 어려운 노령층 이용자에게 싱그러운 6월의 여름처럼 청춘 같은 시간이 되고, 교육도서관이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화천군 고령 주민 건강 관리

화천군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 건강 관리에 나선다. 군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만 60~64세 노인은 사업 대상자의 10% 이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허약체질,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제외) 방편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전에 대상자의 건강상태 스크리닝 후 개별 상황에 맞춰 스마트 밴드, 전자 체중계, 자동 혈압계, 혈당 측정기, 화면형 AI 스피커 등의 장비를 지급한다. 초기 6개월 간은 전담 인력이 비대면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자가 건강관리를 하게 되는 구조다.

대상 노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늘 건강'을 통해 개인별로 주어진 건강 실천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건강 실천과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투약하기, 걷기, 외출하기, 혈압 측정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손목 활동량계 착용하기 등 노인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매일 미션 목표를 달성한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군은 6개월의 진행단계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사후 건강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 개선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건강 과제를 모두 수행한 노인들은 사용하던 스마트 기기를 증정 받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동일 서비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스마트 장비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인 만큼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특별기획 '호국음악회'

한국전쟁 73주년 기념 연주회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은 특별기획 '한국전쟁 73주년 기념 호국음악회'를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에 충주시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날 기획연주회에서는 한국전쟁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희생된 수많은 영웅들을 기억하고자 그들을 기리는 노래들을 모아 연주한다.

이날 공연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인 공우영 객원지휘자의 지휘로 △조원형 작곡 국악관현악 '청청(淸淸)'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에 재직 중인 김상연 교수의 대금 협주곡 '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 △유연숙 시인의 '늦은 별이 되

고'의 시를 시낭송가 김효진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며 호국 영령들을 위로한다.

또한, 성악가 바리톤 박경중의 우직한 목소리로 한국가곡 '시간에 기대어'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주제곡 '지금 이 순간' 및 최성환 작곡·계성원 편곡의 국악관현악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국악그룹 프로젝트 락의 보컬리스트인 이신애의 '난감하네·이몽풍아·시르령실근'을 국악관현악의 반주와 함께 신명나게 선보인다.

공연은 충주시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으며, 전화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유상근기자



충남도, 자유 대한민국 위한 고귀한 희생 추모

도,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엄수... '존경·기억' 보훈문화 강조

충남도는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보훈공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수했다.

김태홍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김일수 도교육청 부교육감, 도의원, 보훈단체, 보훈 가족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추념식은 묵념, 헌화·분향, 추념사·추도사, 헌시 낭독,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추념식에선 10시 정각에 추모의 의미를 담아 1분간 사이렌을 취하며 묵념하고, 조총 21발을 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자랑스러운 애국의 유산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다"라면서 "충남은 선열들의 애국충정을 이어받아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방 클러스터를 구축해 튼튼한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삼군본부

있는 계룡과 국방대 등이 있는 논산, 국방 연구개발에 특화된 대전을 연계해 국방역량을 결집하고 국방부와 함께 첨단 방산기업의 거점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논산에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의 확산도 중요하다"라며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이동녕·이종일·민중식·이상재 등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 충남 보훈관 및 보훈공원 대대적 정비 등을 추진해 일상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봉길 의사께서는 '백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본받아 모두가 고투를 잘하는 강한 나라를 220만 도민이 앞장서 만들어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캐릭터 티어 탄생!"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특별한 재능기부

아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아산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산시 자원봉사자를 대표하는 캐릭터 "티어"를 제작했다.

이번 탄생한 캐릭터 '티어'는 영학력+사랑+용기+히어로의 의미를 담아, 아산시민의 브랜드에 깊이를 더하고자 캐릭터를 제작,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캐릭터 티어는 46종의 기본 캐릭터와 33종의 응용동작이 있

며 쇼핑백, 패키지 상자, 입체 조형물, SNS용 그래픽 등 자원봉사 현장에서 다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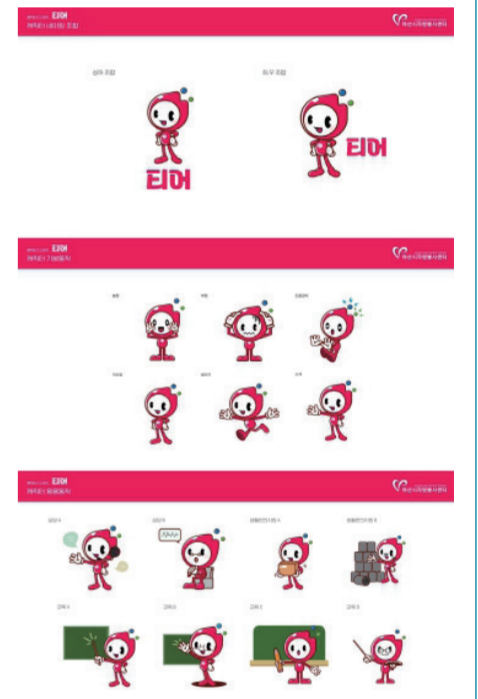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나재민 교수(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기획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 특히 비교와 활동을 통해 학과 전공과 연계된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쁘다. 자원봉사 캐릭터 개발에 참여해준 학생들과 기회를 준 아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현미 사무국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에 전문성이 가미되어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캐릭터가 탄생 됐다. 전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나재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캐릭터 이미지가 필요한 개인 및 자원봉사단체는 아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티어의 Concept
아산행성의 봉사왕, 도와주고 싶은것도, 나누고 싶은것도 너무 많아, 가끔 너누 많은 친절로 실수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봉사 정신을 누구보다 잘 전파할 하는 티어,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머리 위에 방울이 감지한다.

티어의 Story
티어는 먼 우주, 아산 행성에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들 중 티어는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로 아산행성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로 뻗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지구의 자원봉사센터는 '티어'의 능력을 높게 평가해 특채로 영입하게 된다. 히어로 티어는 아산행성과 다른 지구에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칠수 있을까? 앞으로 티어의 활약기 기대해 보자!



최정근기자

보은군, 속리산 역사를 즐기는 '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오는 9일 개막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리산 잔디공원, 범주사 일원에서 열려



보은군은 '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리산 잔디공원과 범주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보은군과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구광희)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는 속리산의 역사를 즐기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민속예술공연대회 등 전통문화와 놀이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제시해 보고, 즐겁고, 느끼는 공감 한마당의 장으로 준비했다.

축제 행사장을 △신화공연무대(주무대) △신화체험부스 △신화역거리장터 △세계유산마당(범주사) 등 4권역으로 나눠 전통문화공연 및 체험 등 40여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축제 첫날에는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천왕봉 산신제', '민속예술공연대회', '범주사 팔상전 탐들이 재연'행사 등이 펼쳐진다.

둘째날에는 국내 최대 산채비빔밥 퍼포먼스 행사인, 1,058명분 '속리산 산채비빔밥 체험', '영신행사', '속리산 산신제', 가족뮤지컬'블레드이발소' 등이 펼쳐지고,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이자연, 박구윤, 임희숙, 정정아, 양지현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찾아가는 희망콘서트가 연계 행사로 이어지며, 야간행사로 미디어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수 박군, DJ RALLY, 미소, 비아

위즈 등과 함께 '한밤의 K-POP EDM & 치맥파티'가 열려 성금 다가는 초여름밤의 열기를 흥겨운 EDM과 치킨&맥주로 풀어 올릴 예정이다.

끝으로 셋째날에는 'BOEUN 댄싱GO 페스타'행사는 1부 'Mountain Challenge'야마추어 댄싱팀 90여명이 참가하는 경연대회, 2부 'Mountain Dacing Summit'은 실력있는 댄싱팀의 화려한 댄싱갈라쇼가 폐막으로 이어져 3일간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축제 내내 △신화체험부스에서는 인력거 투어체험, 보은무형문화재체험, 민속전통놀이, 자연물공예, 타로체험, 가족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역거리존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지역농특산물 판매, 산채감밥, 분빵, 대추치저트 등 간단 먹거리와 플라마켓을 운영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속리산 지역에 내재된 전통문화를 관광객들을 위해 재해석해 선보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변화시키겠다'며 "특히 지난 5월 4일 이후 국립공원 범주사 관람료 폐지 이후 열리는 신화여행축제에 많이 속리산으로 오셔서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괴산군, 미선나무 잎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승인 신청

충북 괴산군 (사)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은 미선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승인'을 식약처에 지난 5월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은 미선나무 식품화사업의 일환으로 미선나무 잎 추출물에서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발견하고 전임상실험 및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인 진행한 인체 적용시험은 총 1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했으며, 체지방량 전체, 체지방률 등에서 유의한 변화를 확인했다.

(사)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식약처에 미선나무 잎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승인'을 신청했다.

미선나무식품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0억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선나무 활용 가공식품 개발, 미선나무 가공센터 구축,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미선나무를 여러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식약처의 승인이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미선나무를 활용하며 새로운 대체 농작물로서 괴산군 미선나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선나무는 세계 유일 1종 1속의 충북 괴산군을 상징하는 특산식물로서 괴산군 장면면 송덕리와 추정리, 칠성면 울지리 3곳에 형성된 미선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김정환기자



아동친화도시 제천,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지도' 공개



아동친화도시 제천시에서 지역 곳곳에 있는 놀이터와 아동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제천시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지도'를 공개했다.

시는 아동과 보호자가 편히 볼 수 있도록 시내 전역에 걸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방문하면 좋을 도서관·공원·청소년센터·체육공원 등을 모두 담아 하나의 '지도 꾸러미'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 책놀이터, 자연·체험 놀이터 등 6개분야 74개소의 명칭과 위치정보가 담겨져 있다.

특히 사업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더욱 뜻깊다는 설명이다.

시는 제작한 놀이터 지도를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제천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놀이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했다"며 "시설에 비치되거나 누리집에 게재된 홍보물을 아동과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고향사랑기부제 대학 1호 동신대학교 1500만원 쾌척 이주희 총장과 교직원 십시일반

동신대학교가 나주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제1호 대학이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주희 총장은 “나주지역 대학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부제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기부제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동신대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신대학교는 5년 간 총 1000억원 규모 지방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 30’ 선정 준비와 함께 나주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지역 관광 활성화,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기관 업무협약, 여름방학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나주시와 동신대, 에너지밸리 내 기업 36곳, 지원기관 22

곳 관계자, 교수, 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을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우리 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온 동신대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각각각 총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 사업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가져오는 지역적 이익과 공공의 가치 인식 확산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을 확장하고 나주시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 흠어, 나주곰탕, 국립숲체원 체험권, 나주반 등 30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장보고한상, 완도군 모국 기업인과 동반성장 앞장설 것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회 장한상 수상자 세계대회’서 밝혀

장보고글로벌재단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세계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박중범, 고상구 장한상 수상자협의회 명예 회장과 김점배 장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송은호, 정한영, 이재구, 안정락, 박상윤, 최본도, 신경호, 전용희, 김종팔, 김민선, 김장열, 이마태오 등 15명 장한상 수상자와 가족, 장미호 장보고경영아카데미 동문회장, 완도군과 재단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21세기 장보고로 인증을 받은 장한상 수상자들은 모국 기업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대회는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점배 장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송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의 인사 말씀,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병수/기자



전남도, 현충일 추념식... 순국선열 숭고한 정신기려

김영록 지사, 선열 정신 이어 ‘행복공동체·살기 좋은 전남’ 다짐

전라남도는 6일 해남 현충탑에서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따뜻한 행복공동체, 살기 좋은 전남’ 실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울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린 후 헌화 및 분향, 도지사 표창, 추념사, 추모편지 낭독 및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에 바친다”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조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소중한

이 땅을 민주와 평화가 꽃피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모두가 살기 좋은 ‘생명의 땅 전남’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 해군3함대와 함께하는 호국문화제, 안보사건 전시회 등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 6월 한달간 전남도 청사 외벽에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문구의 대형현수막을 걸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다.

이밖에도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명예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현재까지 16명에 대한 서훈이 확정됐다. 1895년부터 1945년 기간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2단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1천263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등 독립운동가 명예 회복과 의향 전남 정체성 확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중배/기자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컨소시엄, 서울 도심에 대대적 홍보

남원시, ㈜현대퓨처넷에 홍보 지원받아



남원시는 ㈜현대퓨처넷의 지원을 받아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옥외 전광판에서 8개소에서 대대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전액 ㈜현대퓨처넷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남원 스마트관광 및 남원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대회 등 주요 홍보영상이 12월 말까지 송출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자체 홍보영상에 3D 아나몰픽(Anamorphic: 착시

를 통해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기법)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도 같이 선보였다.

시는 서울 도심 광고를 통해 남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대퓨처넷 등 7개 기업과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민관 컨소시엄의 대표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퓨처넷은 컨소시엄 구성 협약 당시, 남원시에 홍보 및 콘텐츠를 무상 지원하는 약속을 맺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ESG경영 차원으로 대대적인 홍보지원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남원시에 전폭적 홍보를 지원해준 경영진에게 감사하다” 전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별초대행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별초대행 등 2종 추가

전남 함평군이 기부자 수요를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을 확대했다.

함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와 ‘별초대행 서비스’ 등 2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는 함평소방서에서 제안한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 교육이 결합된 서비스 품목이다.

기부자가 함평 관내 주소지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함평소방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 용품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도 제공한다.

별초대행은 함평군 산림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부 시 생산된 포인트로 할인

권을 받아 별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함평에 산소가 있지만 직접 별초가 어려운 출향 향우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43개 품목 80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답례품으로 함평사랑상품권(29%), 함평천지향우(13%), 잡곡세트(10%) 순으로 집계됐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주민이 직접 만드는 새로운 마을축제

진도군, 문화예술자산을 축으로 엮어내는 진도형 도시재생 추진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옥주골 어울림센터 열림식’과 주민이 직접 만드는 진도형 도시재생 마을축제인 ‘옥주골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첫 번째 거점공간인 옥주골 어울림센터는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구)진도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둘러드리는 공간이며, 1층에 조성된 ‘옥주골 하하호호놀이터’는 지역 초등학생 20명이 어린이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기초설계과정에 참여하여 공간을 형성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울림 프리마켓, 어울림 소풍마당,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어린이 디자인 및 꼬마해설사 결과물 전시, 도시재생대학 분과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주민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직접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배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축제 준비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주도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옥주골 마을축제를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일반근린형인 진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진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 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청소년 주민참여위원회 예산학교 운영한다

‘2024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학교 개최’



신안군은 청소년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일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2023년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신안군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안군 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군은 올해부터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받아 청소년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갖도록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청소년들이 성장해서도 신안군을 생각하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영국국가의 날’, 찰스3세 국왕정원 기념식수 행사개최

국가정원 ‘찰스3세 국왕 정원’ 명명 기념해 기념식수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영국 국가의 날을 맞아 ‘찰스3세 국왕 정원’명명 기념 및 영국과의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국 찰스3세 국왕이 직접 이름을 내린 ‘찰스3세 국왕 정원’에서 개최됐으며, 주한영국대사 콜린크룩스(Colin Crooks)와 조직위 천제영 사무총장, 순천시 손점식 부시장 등이 참석해 기념식수 시

삽 및 기념비석 제막을 했다. 기념식수는 주목나무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로빈후드 장공의 재료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수종이다. 조직위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조성된 영

국가정원이 관람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천제영 사무총장은 “환경론자이자 기후변화 방지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찰스3세 국왕께서 직접 이 정원의 이름을 ‘찰스3세 국왕정원’으로 명명해주셔서 영광이다. 정원과 환경, 생태를 통한 영국과 순천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기원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주한영국대사 콜린크룩스는 “한국-영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전라남도 순천시에 찰스3세 국왕정원이 조성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 영국 내 한국의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러한 시기에 대한민국 생태의 중심도시인 순천시와 꾸준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조직위는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세계 14개국, 17개 도시의 ‘국가의 날’행사 참가를 확정짓고, 참가국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박람회 기간 다채로운 국가의 날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이승준/기자

구례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전남 구례군이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구례 현충공원에서 추념식을 개최했다.

군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올해 현충일 추념식 내빈 규모와 의례를 확대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 사이렌 소리

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순호 군수는 “보훈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예 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 호국 순례 지원 등의 사업으로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보훈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화순탄광 폐광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나기 ‘빨간불’

연탄 가격 인상 불가피 ... 도내 2,700여 가구 대책 마련 시급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당장 울겨울 연탄을 소비하는 도내 2,700여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은 1일 열린 2022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석탄공사 폐광 일정과 연계해 도내 연탄 소비자들을 위한 에너지 수급상의 문제점이 파악돼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순에 있는 화광연탄은 적자

등으로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지역민들의 겨울을 책임져 온 남선연탄 역시 화순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해 석탄 공급의 어려움과 경영난까지 겹쳐 6월 중순 문을 닫게 될 예정이어서 도내 연탄을 생산하는 공장이 전무 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가장 가까운 공장인 전북 전주산업에서 구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운송 체계 및 집하장 운영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운송비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떠안게 되어 있어 사전에 예산 투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기준 의원은 “연탄은 여전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물론 비용 절감을 위한 영세 화훼 농가에게도 절실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전남도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종배/기자



장흥군새마을회 일손 부족 농가 돕기 앞장

장흥군새마을회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흥군협의회는 주말을 이용하여 새마을회원과 회원가족 50여명이 함께 지역의 마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자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 농민들의 수고를 덜어 실천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서툰 일손을 보탤다.

새마을가족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관산을 삼산마을 1,000여 평의 마늘밭에서 마늘 수확과 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고를 체험

했다.

함께 참여한 김정원회장은 “덥고 힘들었지만 자녀들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 장흥군수는 “바쁜 농사철 영농 차질없이 적기에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한 새마을회원과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한편 장흥군새마을회는 매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손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박재원/기자



세계적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작가, 강진 찾는다

8일 강진미래아카데미 특강...폴리처상 수상 등 이력 화려

2023. 강진미래교육지구 Season1

강진미래아카데미

5.31.(수)
아름다운 우리 옛그림
〈탁현규 작가〉
고미술 애호가 (전) 강습미술관 연구원

6.8.(목)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 유산의 고대성
〈강형원 포토저널리스트〉
한국인 최초 폴리처상 2회 수상

6.15.(목)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사의 하이라이트
〈과르벳엑스〉
연악시중주단





- 강진아트홀 소공연장, 19:00
- 교직원, 학부모, 청소년, 강진읍, 지역주민 150여명
- 문의: 010-2027-2540 (현장 접수도 가능)
- 시즌1 프로그램 모두 참석시 행사 저서 제공(다량 인쇄)

시즌1 참가자 접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군 강진읍농촌중심지발전사업

강진미래아카데미 시즌1 두 번째 강좌에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씨가 나설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오는 8일 목요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강진미래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강연에는 최고의 포토저널리스트인 강형원 씨가 ‘우리 문화 유산의 고대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미래아카데미’ 교육은 수준 높은 명품 강연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형원 씨는 국내외에서 탁월한 사진 작품과 독특한 시각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높은 수준의 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결합시켜 사진을 통해 이야기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강형원 씨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폴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뛰어난 스토리텔러이자, 디지털 콘텐츠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전선의 칼럼니스트이자 포토저널리스트로서 워싱턴, 올림픽, 북한, 미국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건인 L.A. 4-29 폭동과 9-11 참사 등을 취재하며 30여 년 이상의 미 주류 언론사의 현역 기자 에디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언론인이다.

강의에서 참가자들은 실전 사례와

예시를 통해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강형원 씨는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개인적인 조언과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강진군과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읍농촌중심지발전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강진미래아카데미 시즌1’의 첫 번째 강의가 탁현규 작가의 열광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강진 미래아카데미 시즌1의 세 번째 강의는 ‘과르벳엑스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사의 하이라이트’라는 내용으로 6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K-켄달스퀘어, (구)대덕연구단지 고밀화를 통한 기업공간 확충 신호탄

민선 8기 대전시 노력 결실 ... '직·주·락' 융복합된 혁신공간으로 대전환

민선8기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대덕특구의 고밀도화가 가속화된다.

올해로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는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대전 지역산업의 성장으로의 연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50년 전 조성이 시작된 대덕특구 지구(대덕연구단지)는 전체 면적이 840만 평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저밀도의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한, 2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음에도 인접한 곳에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 공간, 연구자들이 소통할 음식점·카페 등이 부족하여 다양한 기관 간의 교류·융합을 통한 혁신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 대덕특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대덕특구에 'K-켄달스퀘어'를 조성하는 내용과 함께 특구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면서 고밀도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는 첨단기술 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해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스퀘어 마일'로 불리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이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대기업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밀집된 유성구 가정로 일원을 기업, 금융,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주거시설, 문화·휴식공간 등의 집적을 통해 K-켄달스퀘어로 조성, 우수한 청년인재가 모여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이후,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를 모델로

하여 세계적 제약기업 머크사와 카이스트 공동연구소 및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분야 산·학·연·병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로 개발한다.

나아가 대덕특구 내 미개발지 중에서 산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과학기술과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K-켄달스퀘어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시는 관련 중앙부처, 출연연, 기업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음성군 자동차물류산업 기반구축 강화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을 위한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 추진

충북도는 음성군 전략산업인 자동차물류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6월 5일 음성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음성군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기차 충전기 수출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생산 및 기술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며 충북과학기술원은 사업의 성과관리, 사업홍보 등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별 산업생태계와 혁신자원을 고려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산업경쟁력 조기 확보의 핵심 기반인 지원 기반시설 선진화를 위한 장비확충과 기술 지원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자동차물류산업 분야에 선정됐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전기차 충전기 수출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7종의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기 해외수출을 원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 및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지원 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분석·인증 등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음성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선정됨에 따라 음성군 자동차물류산업의 새로운 산업거점 역할 수행과 더불어 기업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은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각 시군 특성을 고려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의 협약을 통해 음성군이 자동차물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또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지역전략산업 기반 확보를 위하여 각 시군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충북도·충주시, 현대모비스(주) 투자협약 체결

동충주산업단지에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조공장 신설

충청북도는 6월 5일 충청북청에서 충청북도와 충주시, 현대모비스(주)간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김영환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오홍섭 현대모비스(주) 전무(전동화BU장)가 참석하여 체결했다. 특히, 금번 투자는 현대차그룹의 국내 전기차 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용 배터리팩의 중부권 신규거점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대모비스(주)는 초기 2,0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총 5,000억원을 투자하여 동충주산업단지에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약 4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 생산

및 인력 운용은 자회사인 에이치그린파워가 진행할 예정이다.

오홍섭 현대모비스(주) 전무(전동화BU장)는 "중부권 전동차 부품 제조사업 확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동충주산업단지 공장 신설로 기업의 성과 달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충주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현대모비스(주)의 신규 공장을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현대모비스(주)가 친환경차량용 부품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청년 창업의 꿈, 충청북도가 응원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 1,000명에게 창업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19세~만39세,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기준 '16

년 이후 창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이다.

당초 창업 3년 이내 부가가치세 납부한 이력 있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6월부터는 '16년 이후 창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매출액이 낮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하며,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자,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증 보유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청년포털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해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이해란 청년인재육성성장관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여 고물가·고금리 및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이 지역의 미래인 만큼,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릉시, 강릉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

연간 최고 30만 원 수수료 지원, QR 결제 가맹점 수시 모집

강릉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0일(금)까지 강릉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강릉페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2분기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릉페이 매출액의 0.25%, 연간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수의 사업체를 가진 소상공인도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분기 지원은 지난 3월 1분기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강릉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며, 연중 1회 접수로 매분기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분기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 3월 진행된 1분기 접수에는 강릉페이 가맹점 1,394개소에 9,266천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최근 강릉페이 할인율(캐시백) 상향으로 사용량이 증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강릉페이 QR결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실물카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QR 결제 서비스는 현재 380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강릉페이 앱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 가맹점주에게는 QR코드 패넌과 가맹점 스티커가 제공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모바일 결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은 사업자가 신청해 더 많은 업소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서래마을서 상송·프랑스 음식 즐거워... 한·불음악축제 열어

오는 17일, 서울 속 '작은 프랑스'마을인 서래마을에서 '반포서래 한·불 음악축제' 열어

서울 속 '작은 프랑스'라고 알려진 서래마을에서 음악 문화축제가 열린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17일 서래마을 인근 서울지방보달청 주차장에서 2023 '반포서래 한·불 음악 축제'를 연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매년 2천여 명의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축제는 식전행사 및 1부, 2부 공연으로 나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구는 이번 축제가 주민들께 예전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부는 프랑스학교 학생들의 합창과 방배중학교 학생들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자치회관의 성악, 남산교회의 클라리넷 앙상블 등 지역주민들과 프랑스 학생들이 참여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2부 공연은 방송인 김승현씨의 사회로 개회식과 함께 연다. 김지옥 뮤지컬배우의 4인조팀 일소나토레의 공연, 상송가수 무슈고와 상송제이의 공연, 뮤지션 김영수의 재즈공연 등이 펼쳐져 특

별한 음악 선물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공연이 한·불 음악 축제의 장을 더욱 뜨겁게 수놓을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를 통해 한국 세시풍습을 알리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 다채로운 프랑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부스와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반포4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영하)에서 주최한다. 한편 구는 서래마을에 교류도시인 프랑스 파리의 15구와의 우정을 기념한 '파리15구 공연'을 조성했다. 또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프랑스 전통장터를 개최하여 프랑스의 전통 연말 파티용 식품류와 크리스마스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며 프랑스인과 한국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래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려 한·불음악축제가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음악축제로 발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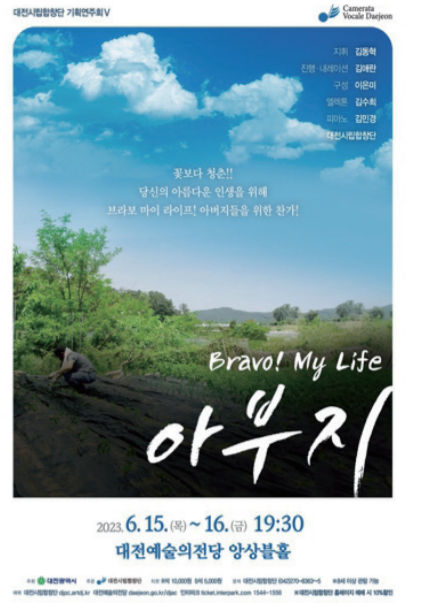
대전시립합창단, Bravo! My Life '아버지' 공연

기획연주회V, 6월 15~16일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무대 올려

대전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V Bravo My Life '아버지'가 오는 15일, 16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기획연주회는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추억의 노래들이 구성된 공연으로 격동의 60~70년대를 지나온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고 장년층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담긴 연주회가 될 전망이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노래하는 첫 번째 무대는 동명의 동요와 가요인 '꽃밭에서'를 어린이 솔로와 합창의 하모니로 선보이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곡 '막걸리 한 잔'으로 공연의 포문을 연다.

거칠 것 없던 아버지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두 번째 무대는 남녀노소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곡인 '여행을 떠나요'와 옛 친구를 떠올리며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는 조용필의 곡 '친구여'를 합창 편곡 버전으로 연주한다. 아버지가 이전에 한 남자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때 그 사랑', '그중에 그대를 만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연주하여 잔잔한 감동과 여운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아버지의 인생 예찬을 노래하는 '아빠 힘내세요', '아빠의 청춘', 'Bravo My Life'를 연주하여 지나온 시간을 위로하고 다가올 새로운 청춘

에 대한 응원과 찬사를 보낸다. 김동혁 전임지휘자의 지휘와 엘렉톤 김수희, 피아노 김민경의 연주와 더불어 배재대 교수 김애란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레이션과 대전시립합창단의 다채로운 음악이 만나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R석 10,000원, S석 5,000원이며 대전시립합창단 홈페이지,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합창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호/기자



실향민문화의 중심도시 속초, 2023 실향민 문화축제 개최

6.9~11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전시·체험행사 펼쳐

속초시와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품은 도시, 속초"를 주제로 '2023 실향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속초시에서는 올 한 해 크고 작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과정에 발맞추어 이번 실향민 문화축제 역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민과 전국 실향민 및 관광객을 맞이한다.

2016년 '제1회 전국이북실향민문화축제'로 시작되어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한 '2023 실향민 문화축제'는 실향민의 대표 도시로 알려진 속초시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실향민 문화 관련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2023 실향민 문화축제'는 시민과 전국 실향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개최장소였던 아바이마을을 벗어나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 메인무대를 마련하여 개·폐막식 및 특별공연 등 주된 행사를 진행하고, 청호동 마항공원과 동명동 수복기념탑공원 등에서 합동마항제 및 작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공식행사는 합동마항제, 개·폐막식, 함상위령제가 거행되고, 메

인행사인 뮤지컬 갈라콘서트 갯배,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축제, 통일콘서트, 이북사투리 경연대회, 실향민 음식 요리시연 이외에도 각종 체험행사 등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9일에는 이북 5도 위원회와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및 실향민 1,000여 명이 함께하는 개막식이 개최되며, 이와 더불어 개막 식전 공연인 '북한문화예술공연'과 축하공연인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갯배'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뮤지컬 갈라 콘서트 갯배'는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실향민의 역사를 대표하는 공연 '갯배'를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속초시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신승태가 속초시립풍물단 및 갯배당과 함께 축제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을 펼친다. 한편, 국악계 및 대중가요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속초시 홍보대사 신승태는 속초 출신 실향민 3세대로 알려진 바 있어 이번 '2023 실향민 문화축제' 참여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남북예술인 합동공연'과 이전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속초·이북사투리 경연대회'가 새롭게 펼쳐지는데, 대표적 실향민 문화 중 하나인 사투리를 통해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실향민 문화를 선보이고 나아가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북 5도를 대표하는 20개

의 무형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북 무형문화재 축제'를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축제를 찾은 분들에게 선보인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스타 셰프 이원일과 함께하는 '속초·이북 실향민 음식 시연 및 체험'행사가 열려 실향민 음식 중 하나인 평양의 어복쟁반을 기반으로 한 냉어복초계장과 속초의 아바이순대에 이국적인 맛을 가미한 요리를 사전 접수된 참가자와 함께 만들어 볼 예정이다. 축제의 마지막인 폐막식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속초사자놀이와 속초시민 및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시 승격 60주년 기념 대동놀이를 함께하며 축제의 막을 내린다.

축제기간 동안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9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인 해상퍼레이드 및 플라이트 워터쇼, 드론 현수막 퍼포먼스가 청초호 일원에서 펼쳐지며, 같은 날 체스터튼스속초 호텔에서는 '실향민 마을에서 통일 준비 및 환동해 중심 거점도시로'라는 주제로 실향민문화 학술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9일부터 10일까지 수복기념탑 공원에서는 시 승격 60주년 및 공원 정비 기념으로 실향민 문화축제와 연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다양한 공연과 행사 외에도 매년 실향민 문화축제에서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

랑을 받은 실향민문화 테마거리와 포토존이 축제기간 동안 청초호 호수공원 일원에 설치되고, 속초시 연극협회 회원들이 피난 당시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거리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엑스포 분수광장 앞 보조무대에선 속초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이북·실향민 및 지역 먹거리 부스, 실향민문화 홍보 및 지역문화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아울러, 축제장 입구에는 실향민과 속초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설치되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꽃 피운 다양한 실향민문화와 이 문화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됐는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도 열린다.

한편, 잔디광장 한 편에는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년 속초시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품은 도시 속초에서 개최되는 이번 2023 실향민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인구 3만+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Welcome to 봉화!

봉화군에서 함께 살아요!

전입축하금 지원(봉화사랑상품권)

- 전입 시 10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2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전입 청년 주택임차료 지원

- 19세 ~ 49세 청년 전입자
- 월 10만원씩 최대 3년 지급
- 2023. 4. 17. 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679-6143)

가업승계소상공인 정착지원

- 19세 ~ 49세 가업승계 소상공인
-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 문의 :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679-6188)

가업승계농 정착지원

-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
- 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
- 2023년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 문의 : 농업기술과 기획교육팀(☎ 679-6835)

봉 화 군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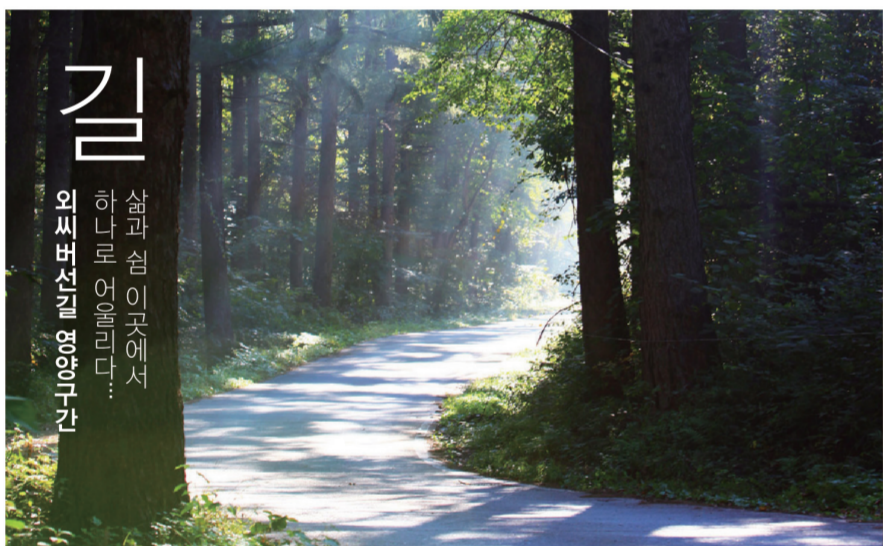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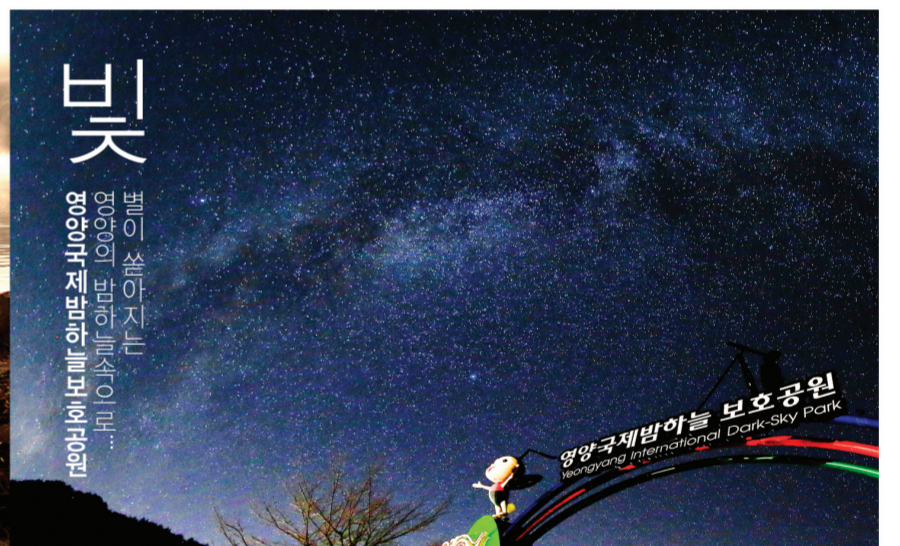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휘날려
이제다아름답게...
영양고추밭이여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 하늘을...
영양국제밤하늘보존지역



얼

시몬학의 대가
석문포정영양서원의 정취...
영양서지



맛

사백떡을 이어와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포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